종교 연대 '생명헌장' 세계로

생명탈핵실크로드, 최종안 발표…전 세계 순례 나서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각국이 합의한 지구촌안전 관련 헌장이 나왔지만 실천적인 부분은 부족하다는 민간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차원서 불교계 주도로 2년간 정비해온 생명헌장이 완성됐다. 해당 헌장이 달라이라마, 교황 등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에게 전해질 지 기대를 모은다.

생명 · 탈핵실크로드순례단(단장 이원영 · 수원대 교수, 이하 생명로드)은 12월 13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서 '지구생명헌장 2018 서울안 및 후반기 생명로드' 행사를 개최, 지구생명헌장 완성안을 공표했다. 평창 월정사를 시작으로, 국내 종교인 및 학계 인사, 태국, 캐나다, 베트남 등 해외 학자 등이 발의 · 검토에 참여하는 등 고심 끝에 '지구헌장 서울안' 이 나온 만큼 해당 헌장이 범종교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명로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핵발전소 관리 및 폐기 필요성을 절감한 이 교수가 기획, 실행에 옮긴 순례다.

지구생명헌장은 생명로드를 통해 전 세계에 생명존엄과 비핵화에 대한 뜻을 확산시키기 위한 용도로 제정됐다. 실제로 순례단은 달라이라마, 프란치스코 교황 등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를 만나 서울안을 헌정하고 범종교계의 생명탈핵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달라이라마 · 교황 비롯해
세계 종교지도자 교류 계획
UN 헌장 가치 이어받지만
인간중심 아닌 숲생명 강조

이원영 단장은 생명로드가 종교적 연합체인 신규 국제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임을 밝혔다. 이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흘렀지만 UN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때문에 국제연합(UN)이 만들어졌다면, 핵발전소 위협에 상응하는 체제도 필요하다. 지구촌 종교계가 연합해 감시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구생명헌장 2018 서울안 요약

제1조. 생명 존엄성은 최상의 가치이다.
제2조. 전 생명체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 연계돼 있다.
제3조. 생명공동체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이다.
제4조. 인류는 지구생태계를 보살필 책임이 있다.
제5조. 생명을 위협하는 핵무기 ·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
제6조. 과학기술에 의한 생명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제7조. 전 인류는 생명권 증진 정책을 제정 · 실천해야 한다.
부 칙. 종교인은 '지구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

지구생명헌장은 UN 세계자연헌장(1982), 리우환경회의 지구헌장(2000)의 가치를 계승, 헌장에는 종교계가 연대해 탈원전 등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두 헌장과의 차이점은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생명 전반의 가치 확산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장은 UN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가 해온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고, '추상적 선언이 아닌 구속력 있는 실행체제' 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지구생명의 원칙 7가지를 제시해 △생명존엄 △생명 연계 △생명공동체 △인류 책임 △핵 폐기 △생명침해 중단 △실천의무를 주문한다.

이 교수는 "생명로드를 걷는 목적은 인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 이라며 "순례에 동참하는 물리적 동참뿐만 아니라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을 외는 마음으로 지구촌 생명의 문제에 뜻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후반기 생명로드는 12월 22일 동지에 서울을 출발, 상반기 순례 때 멈춘 지점인 인도 시라바스티부터 재개된다. 순례단은 2020년 4월까지 5,000km를 걸어 바티칸까지 18개국을 경유해 걷는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2월초 선출

법인 · 교수 · 학생 · 직원 12월 10일 합의문 발표

11일부터 선출 방식 협의 예정
"직선제 · 기존안 등 열어놓을 것"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출이 2월 초에 이뤄진다.

동국대 법인사무처 · 교수협의회 · 직원노동조합 · 총학생회는 12월 10일 본관 교무회의실에서 총장 선임 일정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총장 선출 과정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합의의 배경을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총장 선임 관련 이사회를 12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 선출 방안 및 일정을 확정하고 이후 총장 선임 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최종 후보자를 내년 1월 말까지 추천해 늦어도 2월 초에는 제19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 선임을 확정하기로 했다. **〈차주 상보〉**

이 같은 합의는 지난 9월부터 이뤄진 협의 과정의 성과다. 법인과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교직원 노조는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고 12월 10일 상록원에서 진행한 4자 회의를 통해 선출 일정 논의를 끝마쳤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이사회 전까지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 · 교수협 · 직원노조 · 총학은 12월 11일부터 선출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동국대 총장 출마를 위한 학내 교수들의 물밑 작업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의연 · 허남결 · 이윤호 · 윤성이 · 정창근 · 송일호 · 이상일 · 박명호 · 홍승기 · 유국현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행 스님, 이르면 내달 '방북'

6.15남측위, 명예대표직 제안 · 남북 공동행사 초청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명예대표직을 제안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종교계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이창복 6.15남측위 대표의장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서 이 대표의장은 "지난 10년간 대북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던 환경 속에서 조직에 부분적으로 이완이 있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수축함과 동시에 조직을 확대하고, 열린 공간 속에서 걸맞은 통일운동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려 한다"면서 "원행 스님께서 앞서 총무원장스님들처럼 6.15남측위 명예대표를 맡아주셨으면 한다. 또한 조직의 의결 구조에도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복 6.15남측위 대표의장과 환담을 나누는 원행 스님.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예방에 함께한 조성우 6.15남측위 공동대표는 북측위와 추진 중인 사업에 조계종의 동참을 부탁했다. 조 공동대표는 "현재 북측위와 새해맞이 남북해외민족공동행사를 논의하고 있다. 1월말이나 2월초 금강산서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긍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7대 종교대표들과 협의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스님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정치에 깊이 관여하진 않지만 사회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불방일합시다

부처님은 생애 최후의 말씀으로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유훈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긴 유언처럼 간절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3개월을 실감나게 기록한 〈유교경〉 〈붓다차리타〉 〈대반열반경〉 등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의 유훈을 가슴에 새깁시다.

*"아난다여, 이제 나는 낡은 수레와 같아 내 여행은 막이 내려지고 있다. 아난다여, 수행자는 자기를 등불로 삼고(自燈明)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남을 의지처로 기대서는 안된다. 법을 등불로 삼고(法燈明) 의지처로 삼을지니 다른 어떤 피난처도 의지해서는 안된다. 내가 멸도한 뒤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의 진실한 제자요, 제일가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은 마하와나로 가서 웨살리 근처의 비구들을 모이게 했다.

"나는 나이가 차서 곧 너희들을 떠난다. 부디 방일하지 말고 힘써 마음을 챙기며 계율을 잘 지켜라."

허약한 몸으로 힘든 여행을 하시면서도 부처님은 마지막 공양을 올린 대장장이 춘다를 위해 법문을 설하며 제도하셨다. 부처님은 드디어 쿠시나가라 사라나무 숲에 도달하셨다.

"피곤하구나, 아난다여! 저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자리를 펴 다오."

부처님은 오른쪽으로 누워 팔을 베고 두발을 포갠 다음 제자들에게 둘러 싸였다. 부처님은 뒤늦게 도착한 떠돌이 수행자 수밧다를 8정도로 교화하여 마지막 제자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내가 간 뒤에는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것은 해탈의 근본이다. 그리고 4성제 진리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마음놓고 물어라."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으나 비구들은 침묵하였다.

"그럼 잘들어라,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최후의 말이다." 부처님은 위대한 열반(大般涅槃)에 드셨다.

*부처님은 45년간의 가르침을 '방일하지 말라' (不放逸)로 마무리 하시고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일러주셨습니다.


방일-게으른 농부의 논밭에 무성한 잡초 그림 · 조향숙

'불방일' 부처님 최후 유훈
"계율 잘 지켜라" 함께 당부
'자등명 법등명' 미리 말씀

죽음이 기약없이 닥쳐오고 목숨이 가뭄에 잦아드는 논물처럼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면 방일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 불방일품은 '부지런함은 생명(열반)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고 했습니다.

지금 이순간 게으르지 말고 불방일 정진을 합시다. 순간이 삶입니다. 게으른 농부가 제 때에 김을 매지 않으면 논밭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수행자도, 학생도, 사업가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신분과 근기에 따라 불방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방일은 부처님이 일체중생에게 내린 성취 처방입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느때라도 몸과 입과 뜻으로 선법을 닦아 자기를 변화시키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불방일하여 스스로 지혜를 밝히는 것이 자기의 등불입니다. 스스로 등불을 밝게 비추면 법의 등불은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정진을 스승 대하듯 하고, 방일을 적과 같이 물리쳐라." 부처님의 불방일 처방을 믿고 수행합시다.

깨달음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인도 ·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I 2019년 3월 8일 출발
225 만원

창립30주년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출발일 I 2019년 4월~10월 (매월출발)
239 만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 9일
출발일 I 2019년 3월~4월 중 출발
259 만원~

· 포함사항 - [노옵션] 왕복항공료(유루세, 공항세 포함),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관광지 입장료, 팁경비 포함
· 불포함사항 - 개인적 성격의 지출, 짐 포터·룸메이드 팁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모집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Since.1989 실크로드여행사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